

또래지지와 대인관계 갈등 대처방법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Peer Support,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Skills

심 희 옥*

Sim, Hee Og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support, strategies used to cope with interpersonal stressors, and social skills among 4th and 5th graders. Instruments were the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the Self-Report Coping Scale, and the Teenage Inventory of Social Skills.

Results showed that children used different coping strategies by the level of peer support. Children with more peer support were more active in seeking social support and in solving peer conflict. Children with more problems in peer relationships used more avoidance strategies such as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Children with a high level of social skills were more likely to use approach strategies in peer conflict while children with a low level of social skills were more likely to employ avoidance strategies. Internalization was the most important strategy in explaining inappropriate peer relationships. For girls, social skill was the most essential variable in their peer relationships.

* 군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I. 서론

아동과 청소년기를 통해 정규학교 생활과 방과후 활동으로 아동과 청소년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친구나 또래와 함께 보낸다. 이런 생활 속에서 어떤 아동들은 원만한 친구관계를 갖지만 다른 아동들은 불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질 수 있다. 후자의 아동에게 불편한 또래관계는 스트레스를 주며 친구나 또래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부적응이 그들 자신과 가족, 학교 나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다.

친구, 또래와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협동이나 경쟁, 그리고 친밀감 등이 형성되기(Hartup, 1989) 때문에 친구와의 적절한 관계를 맺고 정신적인 지지를 얻는 등 친구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동후기 아동의 경우 또래의 영향이 증가하고(Berndt, 1979)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자아의식이 강해지면서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에 예민하므로 대인관계 문제에 부적절한 대응은 그들에게 상당한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아동은 청소년보다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심희옥, 1999)되고 있고 청소년 못지 않게 교내의 집단 따돌림에 연루되는 등(주간조선 1998년 9월 23일자) 불행히도 부적절한 또래관계가 집단화되는 이 시점에서 아동의 부적절한 또래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일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친구간의 우정과 수용이 아동과 청소년의 외로움과 불안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도현심, 1998, 1999; 최보가와 임지영, 1999; Parker & Asher, 1993) 또래로부터 거부된 아동들이 사고와 행동에서 심각한 부적응을 보인다고(Asher, 1990) 하듯이, 친

구의 지원과 부적응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친구의 지원이 많을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내적이거나 외적인 면에서 적응적임을 보고한다(강성희, 1991; 심희옥, 1995, 1997; 한미현과 유안진, 1996; Kupersmidt & Patterson, 1991; Sim, 1998; Sim과 Vuchinich, 1996; Windle, 1992). 분명히 친구나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는 아동의 온전한 발달에 필수적이어서 Hodges, Malone, Perry(1997)는 지지적인 친구가 부족하고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것을 사회생활의 위기(social risk)라고 까지 명명하고 있다.

일간지 동아일보(1999년 1월 18일자)는 한국 교육개발원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 지난 해 일년동안 초중고생 4명중 1명꼴로 일명 “왕따”라는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는데, 중학생의 26.9%에 이어 초등학생의 경우 25.1%가 왕따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한다. 따돌림의 비율은 학교급별, 남녀별, 지역별, 성적별, 가정경제 정도에 편중됨이 없이 고르다. 이런 피해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학교 생활 내내 계속된다고 한다. Coie와 Dodge(1983)의 종단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30%에서 50%가 5년에 걸쳐서 또래로부터 거부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거부되는 아동의 사고와 행동이 변치 않고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5학년생의 우정과 또래거부 상황, 그리고 12년 후의 적응에 관한 종단연구(Bagwell, Newcomb, Bukowski, 1998)에 의하면, 또래로부터의 거부 정도가 낮은 것이 성인 초기의 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며 친구관계가 좋았던 아동이 12년 후 자기 가치감이 높다고 한다.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과 또래수용이 관련되어 있듯이(이숙과 정미자, 1995; Coie & Dodge,

1988) 친구나 또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아동의 심리, 행동적인 차원은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지내는 아동의 것과는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거부되는 아동을 연구해야 할 이유는 아동의 부적절한 행동이 어떻게 또래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는지 알게 하고, 어떤 종류의 정적인 기술이 또래와의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Asher, 1990)인데 따돌림받는 아동의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의 또래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초래될 수 있는 정신적이거나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겠다.

아동과 청소년이 겪는 크고 작은 생활 사건들은 그들의 정서와 행동상의 단기 내지는 장기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심희옥, 1995, 1997, 1998a, 1998b; Compas, 1987b). 그러나 스트레스를 주는 경험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적응상의 문제 정도에는 개인차가 있다. 이런 차이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내지는 극복에서의 개인차에 관한 예를 들면, 대인관계나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감정적인 대처보다 문제중심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정서나 행동상의 문제에 더 효율적이라고 한다(Compas, Malcarne, & Fondacaro, 1988).

또한 다양한 해결책을 생성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대인관계의 문제해결에 중요한데 정서와 행동상의 문제를 지닌 아동과 청소년이 더 적은 대책을 갖고 있고 이러한 능력은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상의 적응과 관련된다고 한다(Spivack & Shure, 1982, 1985). 이처럼 대처(coping)란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내적이고 외적인 요구를 해결하려는 끊임없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이다(Lazarus & Folkman, 1984). Compas(1987a)

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 대처노력 혹은 전략(coping efforts or strategies)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취해지는 인지적이거나 행동적인 활동이라며, 스트레스의 근원을 바꾸려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과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 때문에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을 조절하려는 노력이 스트레스를 가져다 준 사건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대처전략은 크게 문제중심적인(problem-focused) 대처전략과 정서중심적인(emotion-focused) 대처전략으로 구분되고, 문제중심전략은 접근식(avoidance) 대처전략, 정서중심전략은 회피식(avoidance) 대처전략이라고도 한다. 전자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바꾸려고 행해지는 노력으로 스트레스(stressor)로 향한 행동적, 인지적 혹은 정서적인 노력을 의미하고, 후자는 스트레스 상황과 연결된 감정 상태를 조절하는 노력으로 스트레스를 멀리하려는 행동적, 인지적, 정서상의 전략을 의미한다(Compas, et al., 1988; 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 1986; Lazarus & Folkman, 1984; Roth & Cohen, 1986).

연구들이 일정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의 효율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어(이미리, 1995; Causey & Dubow, 1993) 일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효율적인 대처전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여러 연구들(Bijttebier & Vertommen, 1998; Compas, et al., 1988; Miller, Danaher, & Forbes, 1986; Muson-Miller, 1993; Patterson & McCubbin, 1987)이 대처전략의 생성과 사용에서 성별간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Bijttebier와 Vertommen(1998)은 벨기에 4-6년생 대상의 연구에서 또래에게 심하게 따돌림당한 아동은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거칠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결과와 함께

놀림당한 여학생은 내적인 대처전략을, 타인을 못살게 구는 남학생은 외적인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한다. 사회화되어지는 과정에서 남녀가 차이가 있어 일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남녀가 다른 대처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아동에게 친구는 일상생활에서 인지와 사회적인 자원으로 생활 속에서의 변화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친구가 없는 아동보다 친구가 있는 아동이 더 적응적이다. 아동간에 원만한 친구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양보, 희생과 협조 같은 친사회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만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회적인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 적절한 사회적인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면 친구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 이처럼 사회적인 기술이 좋은 아동사이의 지지적인 관계는 그들의 발달에 매우 유익하다(Hartup, 1996).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은 사회적인 유능감(social competence)이라는 보다 더 큰 개념의 한 구성체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일정한 사회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가치가 있으며, 때때로 개인과 서로에게 유익한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을 말한다(Gresham & Cavell, 1986). 또한 McFall(1982)에 의하면, 사회적 기술이란 개인이 매일의 사회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전략이나 방략으로 친구를 사귀거나,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타인의 사회적인 개입에 응하는 것 등을 말한다. 즉, 사회적인 기술은 대인관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적절하게 취하는 행동으로 학교생활을 통해 얻어지는 중요한 소득 중 하나가 이 사회적 기술이다(Elliott, Gresham, 1993).

아동의 온전한 발달을 위해 적절한 대인관계 기술이 중요해서 또래에게 거부된 아동들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사회정서면에서 부적응적이고 학업 성취도 낮은 것으로 보고된

다(Parker & Asher, 1987). 또한 Asher와 Coie (1990)는 사회적으로 거부되는 아동에게 사회적 기술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듯이 적절한 친구나 또래관계를 유지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요구될 수 있다. 즉 또래관계가 원만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행동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또래관계가 좋은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발달 정도는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대인관계 기술인 사회적 기술과 인지·행동적인 갈등 대처전략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사회적인 기술이 발달된 아동이 더 즐겨 사용하는 대처전략이 있을 것인가? 이들 두 변인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아직 미흡하지만 연구자들이 관심을 쏟을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술이 능숙한 아동이 사용하는 대처전략을 밝히는 것은 사회적 기술이 미숙한 아동에게 사회적 기술이 발달된 아동이 대인관계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방법의 시도를 독려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상황에서 적절한 문제해결 전략을 사용하고, 친사회적인 행동이나 협조적인 행동을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또래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인기가 있는 반면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거부되기 쉽다고 보고한다(Dodge & Feldman, 1990 참고). 이렇듯, 친구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일반적인 대인관계 기술과 더불어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의 인지·행동적인 대응방식이 친구와의 원만한 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아동이 또래로부터 수용되거나 거부되는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종합해 보면, 또래에게 수용되는 정도에는 상당한 개인차가 있는데(Parker & Asher, 1987), 이는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없어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는 아동이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사용하는 대처전략이 그렇지 못한 아동과는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이며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을 조절하는 노력인 대인관계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전략에 따라 또래와의 문제해결과 적응에서 효율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동이 또래에게 지지 받는 정도에 따라 갈등 대처전략과 그들의 사회적 기술의 발달정도가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회적 기술 발달정도와 대인간의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대처전략간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 평가한 친구나 또래로부터의 따돌림이나 괴롭힘, 놀림 등 초등학교 학생들이 경험하는 또래관계와 적절한 또래지지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아동들의 심리·행동적인 특성, 즉 그들의 친구나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방법과 그들의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를 탐색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긍정적인 사회성 발달에 필요한 개인적인 자질이나 기술이 무엇인지 규명하여 아동이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몇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Rose와 Asher(1999)도 정의하듯이, 또래수용(acceptance)은 특별한 두 사

람간의 맺어지는 관계보다 여러 사람이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관계를 의미한다. 또래수용이나 또래지지라는 용어는 같은 맥락에서 사용한다. 또한 또래(peer)와 친구(friends)의 개념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주위동료의 의미로 사용함을 밝힌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 또래로부터 지지 받는 정도에 따라 친구와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과 사회적 기술발달에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이 또래로부터 지지 받는 정도를 가장 잘 예언해 주는 친구와의 갈등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지지 받는 정도를 예언해 주는 변인에 성별간에 차이가 있는가?
3. 아동의 친구와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과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4. 5가지의 갈등 대처방법과 사회적 기술 중 아동이 또래로부터 지지 받는 정도를 잘 예언해 주는 변인은 무엇인가? 지지 받는 정도를 예언해 주는 이들 변인에 성별간에 차이가 있는가?
5. 아동이 또래로부터 지지 받는 정도, 친구와의 갈등 대처방법, 그리고 사회적 기술의 발달에 성별간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K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4, 5학년생 339명이다. 연구 대상자의 학년과 성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

범위는 9-12세로, 평균연령은 11.14세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0%, 대학교 졸업이 45.1%이고, 아버지의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응답한 사람 중 자영 상공업 27.4%이고, 사무직과 관리 및 전문직이 47.8%이었

다. 어머니의 경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6.3%이고 대학교 졸업이 28.6%이었으며, 어머니의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응답한 사람 중 자영 상공업 14.2%이고, 사무직과 관리 및 전문직이 10.1%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학년·성별 분포 () : %

학년	성별		계
	남	여	
4	84(24.8)	77(22.7)	161(47.5)
5	88(25.9)	90(26.6)	178(52.5)
계	172(50.7)	167(49.3)	339(100)

2. 측정 도구

(1) 또래지지

아동의 친구나 또래와의 주관적이며 질적인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Dubow와 Ullman(1989)이 만든 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또래, 가족, 선생님의 지지를 아동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또래의 지지를 묻는 또래지지 하위척도 문항 15개를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친구의 따돌림, 괴롭힘과 놀림 등을 묻는데, 한 문항을 예로 들면, “친구들이 날 따돌리는 것 같다” 이다. 응답은 “결코 아니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 Alpha는 .90이었다.

(2) 대처전략

Casey와 Dubow(1992)가 만든 Self-Report Coping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 상황인, “친구와 말다툼하거나 싸웠을 때”에 아동은 어떤 대처를 하는지를 묻는다. 이 척도는 위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는 5가지의 전략을 측정하는데, 문제를 멀리하거나 거리를 두려는 전략 7문항, 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 7문항, 문제를 외적으로 풀려고 하는 전략 4문항, 사회적 지원을 찾는 전략 8문항, 그리고 자신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 8문항으로 총 3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결코 아니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 Alpha는 문제를 멀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전략이 .67, 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이 .67, 문제를 외적으로 풀려고 하는 전략 .63이었고, 사회적 지원을 찾는 전략이 .72, 자신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이 .80이었다.

(3) 사회적 기술

Inderbitzen과 Foster(1992)가 만든 Teenage Inventory of Social Skill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행동들을 서술하고 있는데 받은 긍정, 받은 부정적인 상황에서의 행동으로 총 4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정도를 “정말로 아니다”에서 “정말로 그렇다”의 6점 척도로 평가한다. 긍정적인 행동의 한 문항의 예는 “친구가 숙제를 도와 달라고 하면 도와준다” 이고, 부정적인 행동의 한 문항의 예는 “나는 다른 애들이 실수를 하면 비웃는다”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기술이 발달된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 Alpha는 .71이었다.

3. 조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대상은 중소도시인 K시내에서 상 중하의 경제적인 여건이 고루 섞인 초등학교 한곳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변안 과정에서 적합한 언어 선택과 이해를 위해 연구의 해당 연령 학생과 학교 선생님들의 자문을 구하여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질문지는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각 담임 선생님께 3일 동안 맡겨지고 각 반의 자유로운 시간에 응답된 후 회수되었다. 교사들을 통해 배부된 40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를 제외한 339부가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은 일원변량 분석을, 연구문제 2와 4는 아동의 또래로부터 따돌림받는 정도를 가장 많이 설명해 주는 변인을 찾기 위하여, 전체 그리고 성별로 나누어 단계적 회귀분석을 했다. 연구문제 3은 Pearson 상관계수를 구했다. 연구문제 5는 주요 변인간의 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했다.

Ⅲ. 연구결과

1. 아동이 또래로부터 지지 받는 정도에 따라 친구와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과 사회적 기술 발달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하여 또래지지별 변량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표 2>와 같다.

연구문제 1은 아동의 또래지지에 따라 대처 양식과 사회적 기술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또래지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X > M + SD$ 인 경우는 또래지지가 낮은 집단, $M - SD < X < M + SD$ 인 경우는 중간 집단, $X < M - SD$ 인 경우는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2>에 의하면, 또래지지를 적게 받은 아동이 지지가 중간이거나 높은 집단의 아동보다 더 많이 내면화와 외면화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원 찾거나 문제해결은 또래관계가 원만한 아동이 더 하는 대처방식임을 알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듯이 사회적 기술은 또래관계에 어

<표 2> 또래와의 갈등 대처방법과 사회적 기술에 대한 또래지지별 변량분석 결과

변인	또래지지	M	F	Duncan
문제와 거리두기	하	17.62	F=.20 NS	
	중	18.06		
	상	18.24		
내면화	하	23.00	F=27.65 P<.0001	A
	중	17.54		B
	상	16.86		B
외면화	하	10.42	F=11.17 P<.0001	A
	중	8.09		B
	상	7.88		B
사회적 지원 찾기	하	20.96	F=2.69 P<.10	A
	중	21.68		A B
	상	23.56		B
문제해결	하	26.12	F=17.09 P<.0001	A
	중	28.79		B
	상	32.72		C
사회적 기술	하	154.98	F=26.22 P<.0001	A
	중	167.01		B
	상	178.72		C

려움이 없는 아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이 또래로부터 지지 받는 정도를 가장 잘 예언해 주는 친구와의 갈등 대처방법은 무엇인가? 지지 받는 정도를 예언해 주는 변인에 성별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 정도를 가장 의의 있게 예언해 주는 변인은 남녀 모두 갈등상황에서 내면화를 많이 사용하는 아동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은 두번째로 또래 관계의 원만한 정도를 설명해주고 있다. 남자

의 경우, 또래지지 변인의 70% (24/34)이상이 내면화 전략으로 설명되어, 친구와 말 다투거나 싸웠을 때, 혼자서 고민에 빠지거나 울거나 하는 일들이 남학생의 불만족스런 또래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경향성($p < .10$)을 보이고 있으나 또래갈등에서 문제와 거리를 두는 대처전략이 유의할 수 있음이 시사된다.

3. 아동이 친구와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과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아동이 친구와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과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3> 또래지지 정도를 가장 잘 예언해 주는 갈등 대처방법에 대한 전체·성별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인		b	β	부분 R ²	R ²	Adj-R ²
전체	내면화	.83	.45	.17	.17****	.29
	문제해결	-.56	-.35	.12	.29****	
	문제와 거리두기	-.16	-.08	.01	.30 ⁺	
남자	내면화	.99	.51	.24	.24****	.34
	문제해결	-.55	-.33	.11	.35****	
여자	내면화	.61	.35	.13	.13****	.26
	문제해결	-.56	-.35	.12	.25****	
	외면화	.34	.12	.01	.26 ⁺	
	문제와 거리두기	-.27	-.15	.01	.27 ⁺	

⁺p<.10 ****p<.0001

<표 4> 또래와의 갈등 대처방법과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에 관한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

변인	1	2	3	4	5	6
1. 문제와 거리두기	-					
2. 내면화	.16**	-				
3. 외면화	.18**	.39****	-			
4. 사회적 지원 찾기	-.14*	.002	.04	-		
5. 문제해결	.02	.07	-.11*	.38****	-	
6. 사회적 기술	-.13*	-.20****	-.46****	.15**	.43**	-

N=339. *p<.05 **p<.01 ***p<.001 ****p<.0001

사회적 기술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갈등 대처 방법 중 문제와 거리두기($r=-.13$), 내면화($r=-.20$)와 외면화($r=-.46$)와 같은 도피적 갈등대처 방법을 적게 사용하고, 사회적 기술이 발달될수록 사회적 지원 찾기($r=.15$)와 문제해결($r=.43$)과 같은 접근식, 문제중심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5가지의 갈등 대처방법과 사회적 기술 중 아동이 또래로부터 지지 받는 정도를 잘 예언해 주는 변인은 무엇인가? 지지 받는 정도를 예언해 주는 이들 변인에 성별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의 또래지지의 정도를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변인의 순서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 또래와의 관계의 어려움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은

내면화였고, 두번째는 문제해결로 나타났다. 아동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술이 대처양식과 함께 또래지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 기술이 또래와의 관계에 가장 많이 기여했고 그 다음은 문제해결, 내면화 순서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또래와의 한 특정한 대인 갈등상황에서의 대처방식보다 전반적인 사회적 기술이 그들의 원만한 또래관계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여자의 경우, 문제에 일단 거리를 두어보는 것도 대인관계 적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아동이 또래로부터 지지 받는 정도, 친구와의 갈등 대처방법, 그리고 사회적 기술의 발달에 성별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t-검증한 결과를 보면 <표 6>과 같다.

<표 5> 또래지지 정도를 예언해 주는 갈등 대처방법과 사회적 기술에 대한 전체·성별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인	b	β	부분 R ²	R ²	Adj-R ²
전체	내면화	.75	.41	.17	.17****	
	문제해결	-.42	-.26	.12	.29****	
	사회적 기술	-.11	-.21	.03	.32***	
	문제와 거리두기	-.20	-.11	.01	.33*	.32
남자	내면화	.93	.46	.24	.24****	
	문제해결	-.40	-.24	.11	.35****	
	사회적 기술	-.10	-.19	.03	.38**	.36
여자	사회적 기술	-.15	-.24	.18	.18****	
	문제해결	-.41	-.26	.06	.24****	
	내면화	.54	.31	.05	.29**	
	문제와 거리두기	-.26	-.15	.02	.31*	.29

* p<.05 **p<.01 ***p<.001 ****p<.0001

〈표 6〉 또래지지, 갈등 대처방법, 그리고 사회적 기술에 대한 성별 t-검증결과

변 인	성 별	M	SD	t
또래지지	남	33.31	10.26	.33
	여	33.66	9.20	
문제와 거리두기	남	17.93	5.36	.37
	여	18.14	5.06	
내면화	남	17.59	5.27	2.32*
	여	18.92	5.28	
외면화	남	8.22	3.40	1.01
	여	8.59	3.35	
사회적 지원 찾기	남	22.09	6.09	-.73
	여	21.61	5.95	
문제해결	남	29.02	6.21	-.13
	여	28.93	5.76	
사회적 기술	남	164.83	19.29	2.29*
	여	169.16	15.36	

* p<.05

〈표 6〉에 의하면, 또래에게 지지 받는 정도에는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처전략 중 내면화에서만 성차를 보이고 있다.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문제를 더 내면화해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 기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논의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위해 이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밝히는 일은 인간발달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거리이며 중요한 일이다. 요즘과 같이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친구나 또래로부터 따돌림받을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특성을 탐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또래지지와 아동의 또래와의 갈등 대처양식과 사회적 기술, 그리고 이들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아동이 대인관계의 문제를 효과적이고 적응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로 유능함을 나타내는데, 사회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못하는 아동을 발견하여 그들의 사회적인 행동을 향상시키고 이들을 돕는 일은 문제의 예방차원에서 매우 의의 있는 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또래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의 또래 갈등 대처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와 원만하게 지내는 아동은 내면화와 외면화라는 도피적인 전략을 적게 사용하고, 사회적 지원을 찾거나 자기 자신을 믿고 문제

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접근적 방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지지에 따라 사회적 기술의 발달 정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 기술이 발달될수록 또래로부터의 따돌림이나 괴롭힘, 놀림을 적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원만한 또래관계에 적절한 사회적 기술이 필수적임을 말해준다.

또래지지 정도를 가장 잘 예언해 주는 또래간의 갈등 대처방식은 첫번째가 내면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같은 결과인데 특히 남자의 경우, 또래지지 변인의 70%(여학생의 경우는 50%) 이상이 내면화 전략으로 설명되어, 친구와 말다툼하거나 싸웠을 때, 혼자서 고민에 빠지거나 울거나 하는 일들이 따돌림, 괴롭힘, 놀림 같은 또래관계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남학생의 경우 친구와 언쟁이 있을 때 이 문제를 내면화하는 것은 특히 이들에게 부적응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학생의 경우 5가지의 대처 전략에 사회적 기술이 고려 될 경우는, 사회적 기술이 첫번째로 그들의 원만한 또래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에게 특수한 상황에서의 여러 갈등 대처전략보다 그들의 지닌 일반적인 사회적 기술의 발달 정도가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두번째는 문제해결이라는 대처전략으로, 원만하지 못한 또래관계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적 대처전략은 부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 자신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아동이 또래와의 갈등을 더 잘 극복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흥미롭게도 여학생의 경우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문제와 거리를 두는 대처방식은 이들의 원만한 또래관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물론 문제와 거리를 두는 양식은 문제를 회피하려는 대처이지만 반듯이 이 회피 양식이 부적응적이지만은 않다(Compas, 1987a)는 것을 시사한다. Roth와 Cohen(1986)은 통제 가능한 사건은 접근적인 전략이 효과적이지만,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도피해버리는 전략이 적응적일 수 있다며 두 전략이 가질 수 있는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서적이고 심사숙고한 면이 많을 수 있는데 대인관계 문제를 약간 무시하거나 거리를 두어보는 것이 여학생에게는 적응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기술은 도피적인 대처방식과는 부적응으로, 접근적인 대처방식과는 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이는 사회적 기술이 발달된 아동일수록 친구와의 갈등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본 연구가 횡단연구여서 두 변인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해석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아동의 사회적인 기술의 발달 정도에 따라 친구와 다투거나 싸웠을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처방식에서의 성차는 내면화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예측할 수 있듯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혼자서 고민에 빠지거나 울거나 걱정하고 스스로 안되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여학생이 내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Bijttebier & Vertommen(1998)의 결과와 일치하는데 이는 남녀가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다른 전략을 사용하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물론 여학생보다 적게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특히 남학생이 내면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적응에 부정적일 수 있음에 주목을 요한다. 또한 사회적 기술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발

달 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기술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거나 타인을 배려하는 표현이나 행동 등으로 이런 행동은 여학생이 사회화과정에서 더 익숙할 수 있어 여학생이 더 발달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생각건대, 또래로부터 받는 지지 정도에 따라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대처전략이 다를 수 있다.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내면화와 외면화라는 회피적인 갈등대처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또래관계가 원만할수록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즉 또래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아동일수록 사회적 지원을 찾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울거나 혼자 고민에 빠지거나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해버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치는 등 문제 회피적인 행동은 적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내면화 같은 방식은 여학생이 많이 쓰고 있지만 특히 남학생의 경우 또래갈등 상황을 내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부적절한 또래관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는 대인관계 문제에 거리를 두어보는 전략도 효율적일 수 있었다. 또한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아동이 사회적 기술이 덜 발달되어 있고 비효율적인 대처양식을 사용하고 있음이 들어났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와의 갈등상황과 성인과의 갈등상황에서 대처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Roecker, Dubow, Donaldson, 1996),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 다양한 대처행동이 있을 수 있다(민하영과 유안진, 1998)고 하므로 아동의 생활 속에

서 대처행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아동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상황에서 어떤 대처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둘째, 여러 대처전략의 효율성 문제에 대한 연구이다. Compas(1987a)는 문제중심, 정서중심의 대처전략 둘 다가 스트레스의 성공적인 적응에 중요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상황에 따라 이들의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셋째, 대처양식의 발달적인 변화가 시사되고(Altshuler & Ruble, 1989; Compas, Banez, Malcarne, Worsham, 1991; Compas, Orosan, Grant, 1993) 있고, 변인들 간의 인과적인 해석을 위해 여러 연령의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의 종단연구가 요망된다.

본 연구결과의 활용을 생각해보면, 첫째, 대인관계 갈등상황에서 친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아동의 갈등 대처전략은 어떤 것인지를 밝혔으므로 또래관계에 문제가 있는 아동에게 접근적인 대처양식(사회적 지원을 찾아 나서거나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전략)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또래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게 할 수 있겠다. 둘째, 또래로부터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받고 방황하는 아동의 긍정적인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가 밝힌 또래지지,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대처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를 또래에게 인기가 없거나 거부되어지는 아동을 위한 효율적인 개입 프로그램이나, 아동, 학교, 청소년의 상담기관이나 보호단체에서의 바람직한 사회관계 기술 훈련의 기초자료로 쓰여질 수 있고, 아동의 생활지도에 활용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강성희(1991). 아동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적응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의 역할.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도현심(1998). 인성특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2), 1-9.
- 도현심(1999).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과 초기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33-49.
- 민하영, 유안진(1998).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6(7), 83-96.
- 심희옥(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 및 부적응. *아동학회지*, 16(1), 89-98.
- 심희옥(1997).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2.
- 심희옥(1998a).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우울성향: 일상적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6), 133-144.
- 심희옥(1998b). 아동후기 초등학생의 부정적 생활사건,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원과 부적응에 관한 종단연구. *아동학회지*, 19(2), 35-47.
- 심희옥(1999).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과 가족·친구의 지원 및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6), 11-22.
- 이미리(1995). 고 3 청소년의 시험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과 우울증 수준과의 관계--복합적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89-98.
- 이 숙, 정미자(1995). 아동의 또래 수용도 및 관련변인. *대한가정학회지*, 33(2), 103-112.
- 최보가, 임지영(1999).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한미현, 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Altshuler, J. L., & Ruble, D. N. (1989).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awareness of strategies for coping with uncontrollable stress. *Child Development*, 60, 1337-1349.
- Asher, S. R. (1990). Recent advances in the study of peer rejection.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3-14).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sher, S. R., & Coie, J. D. (1990). *Peer rejection in childre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gwell, C. L., Newcomb, A. F., & Bud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erndt, T. J. (1979).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6), 608-616.
- Bijttebier, P., & Vertommen, H. (1998). Coping with peer arguments in school-age children with bully/victim problem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8, 387-394.
- Causey, D. L., & Dubow, E. F. (1992). Development of a self-report coping measur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1), 47-59.
- Causey, D. L., & Dubow, E. F. (1993). Negotiating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The contributions of coping strategies and perceptions of the school environment. *Prevention in Human Services*, 10(2), 59-81.
- Coie, J. D., & Dodge, K. A. (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 261-281.

- Coie, J. D., & Dodge, K. A. (1988). Multiple sources of data on social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the school: A cross-age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59, 815-829.
- Compas, B. E. (1987a).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3), 393-403.
- Compas, B. E. (1987b). Stress and life event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7, 275-302.
- Compas, B. E., Banez, G. A., Malcarne, B., Worsham, N. (1991). Perceived control and coping with stres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47(4), 23-34.
- Compas, B. E., Malcarne, V. L., & Fondacaro, K. M.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3), 405-411.
- Compas, B. E., Orosan, P. G., & Grant, K. E. (1993). Adolescent stress and coping: Implications for psychopathology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6, 331-349.
- Dodge, K., A., & Feldman, E. (1990). Issues in social cognition and sociometric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119-155).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Elliott, S. N., & Gresham, F. M. (1993). Social skills interventions for children. *Behavior Modification*, 17(3), 287-313.
- Folkman, S., Lazarus, R.,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 J. (1986). Dynamics of a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92-1003.
- Gresham, F. M., & Cavell, T. A. (1986). Assessing adolescent social skills. In R. G. Harrington (ed.), *Testing adolescents: A reference guide for comprehensive psychological assessments* (pp.93-123). Kansas: Test corporation of America.
- Hartup, W. W. (1989). Social relation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American Psychologist*, 44(2), 120-126.
- Hartup, W. W. (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1), 1-13.
- Hodges, E. V. E., Malone, M. J., & Perry, D. G. (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1032-1039.
- Inderbitzen, H. M., & Foster, S. L. (1992). The teenage inventory of social skills: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Psychological Assessment*, 4(4), 451-459.
- Kupersmidt, J. B., & Patterson, C. J. (1991). Childhood peer rejection, aggression, withdrawal, and perceived competence as predictors of self-reported behavior problems in pre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4), 427-449.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McFall, R. (1982).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the concept of social skills. *Behavioral Assessment*, 4, 1-33.
- Miller, P. M., Danaher, D. L., & Forbes, D. (1986). Sex-related strategies for cop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in children aged five to seven.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43-548.
- Muson-Miller, L. (1993). Social acceptance and social problem solving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4, 59-70.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Patterson, J. M., & McCubbin, H. I. (1987). Adolescent coping style and behavior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olescence*, 10, 163-186.
- Roecker, C. E., Dubow, E. F. & Donaldson, D. (1996). Cross-situational patterns in children's coping with observed interpersonal conflic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5(3), 288-299.
- Rose, A. J., & Asher, S. R. (1999).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response to conflicts within a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69-79.
- Roth, S., & Cohen, L. J. (1986). Approach, avoidance, and coping with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1, 813-819.
- Sim, H. (1998, February). Relationship of daily hassles and social support to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among early adolescent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Adolescence, San Diego, CA.
- Sim, H., & Vuchinich, S. (1996). The Declining effects of family stressors on antisocial behavior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408-427.
- Spivack, G., & Shure, M. B. (1982). The cognition of social adjustment: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solving thinking. In B. B. Lahey & A. E. Kazdin(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Vol. 5, pp. 323-372). New York: Plenum Press.
- Spivac, G., & Shure, M. B. (1985). ICPS and beyond: Centripetal and centrifugal forc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 226-243.
- Windle, M. (1992). Temperament and social support in adolescence: Interrelations with depressive symptoms and delinquent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1), 1-21.
- 〈신문기사〉
 동아일보 1999. 1. 18. 23면
 디지털 조선일보: 주간조선 1998. 9. 23.